영어어문교육 *제26권* 2호 2020년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0.26.2.133

국내 영어교육에서 English Literacy관련 연구동향 분석

장 형 지*
(선문대학교)
박 지 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hang, Hyung-ji & Park, Ji-seon (2020). The review on joural articles of English education related to English literacy stud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6*(2), 133-153.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about Englsih Listeracy (EL) of Korean EFL learners. In the study, 93 journal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eaching (ELLT). Then, the study conducted a statistical review with Freuqency Analysis (FA) to get the gist of collected journal articles.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into participants, research method and topics. In addition, Content Analysis (CA) was follwed to ascertain which English literacies were dealt mostly among the journal articles. For the study, the term, EL is considered as functional literacy (FL), ciritical literacy (CL) and literacy for social practice (LSP) and they were analyzed respectively. In the findings, firstly, the descriptive information provides that ELLT mostly embraces the tertiary level of participants, teaching method and English writing competence. Secondly, the result of CA reported that FL related journal articles were mostly found in ELLT. Lastly, the study concludes the discussion with the further pedagogical implications of EL.

[English Literacy/functional literacy/critical literacy/literacy for social practice, 영어문해력/기능적 문해력/비판적 문해력/사회활동의문해력]

I. 서론

English Literacy(EL)는 적절한 수준으로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 쓸 수 있

* 제 1 저자
** 교신저자

는 능력을 말한다(Blake & Hanley, 1995). 독립된 성인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한국과 같은 EFL 상황에서는 외국어로의 영어학습의 상황이므로 EL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영어학습에서의 EL은 영어를 통한기본적인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 영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이다(Jennings, 2000). 1990년대 이후 EL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존의 글을 읽고, 쓰는 수준의 문해력에 국한되었던 EL에 대한 논의는 Freire(1995)의 Critical Literacy(CL)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확대되었는데, Freire는 CL을 통해, 읽기 학습자들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작가와 독자 사이의 힘의 관계에 도전할 수 있는 학습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ohnston와 Regers(2006)는 CL은 대안적 언어학습으로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고, 균형있는 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인의 문해력 향상에 필수적인 능력인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영예, 2011; Harste, 2003). Dozier, Wyse(2009)는 문해력은 단어를 읽고, 쓰기 위한 기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론적 체계로, 의사소통을 위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로 구성된 다양한 체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적정수준의 문해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Lawton와 Gordon(1996)은 EL의 보편적인 표준을 찾기가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EL은 개인이 성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읽고, 쓸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Functional Literacy (FL)라고 하였다. 또한 Street(1995)은 Litearcy of Social Practice(SP)을 소개하였는데, 맥락과 관련된 해독능력으로써의 문해력으로 정의하였다. Fransman(2008)은 FL은 능력(competences), 즉 공동체 안에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CL 은 비판(critique), 즉 기존 사회의 틀을 깨고 변화를 위해 도전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SP는 설계(design), 즉 독자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에 의해 본인의 문해력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New Literacy의 접근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어교육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구에 대한 내용 전반에 대한 동향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English Litearcy(EL)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EL에 관한 영어교육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학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영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을, CL, FL과 SP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최근 3년간의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2) 한국의 영어교육 연구에서 최근 3년간의 EL에 대한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Ⅱ. 문헌연구

1. 국내 영어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를 중반을 시작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영어교육의 특정 주제와 관련한 연구 경향을 폭넓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김영우 & 김주혜, 2015). 동향 연구는 양적인 수량화를 통해 표준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메타분석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연구 경향성이나 특이점을 발견하고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방향과 중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차경환 & 김영규, 2010). 국내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동향을 탐색한 김영우와 김주혜(2015)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 동향을 분석한 국내 영어교육 관련 논문들은 크게 1) 일정한 시기 동안 특정 학술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연구와 2) 특정 주제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조사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의 유형으로 수행된 동향 연구로는 이성희(2005), 차경환과 김영규(2010), 강동호(2006), 차경환(2006), 성명희와 남은희(2010), 이현구(2014), 김현진(2014) 등이 있으며, 후자의 유형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연구방법에 대한 김진완(2006), 특수목적 영어에 대한 조은영, 김윤진, 안재린과 김영규(2012), 조기영어교육 및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김태영과 이희진(2015), 영어교사의 교수 동기에 대한 조아라와 김태영(2018), 내용 언어 통합 초등영어에 대한 임희정(2019), 국내 영어교육에 적용된 Vygotsky 이론 연구 동향에 대한 안혜성과 박매란(2020) 등이 있다.

이현구(2014)는 1995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논문 총 628편 중 영어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를 주제 영역으로 선정한 논문 76편을 분석하였다. 이 중 평가 관련 논문이 3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 관련 논문이 19편으로 가장 적었다. 평가와 관련한 논문의 연구대상 학교급은 대학교 18편, 중등 16편, 초등 2편, 종합 1편으로, 대학교급과 중등학교급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해당 주제 논문의 92%를 차지하였다. 총 76편의 논문을 연구방법별로 살펴보면 양적연구 49편, 이론 및 문헌을 제시한 연구 23편,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혼용한 혼합연구 3편, 질적연구 1편의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다. 김현진(2014) 역시 1995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논문 중 교수학습 방법, 화, 내용기반 교수, 몰입교육, 과업 중심 교수를 주제로 하는 70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수학습 방법 관련 논문들은 언어 기능 향상과 소집단 협동 학습에 대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학교급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연구가 35편으로 가장 많았다. 김현진(2014)의 경우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을 위해 대상 논문을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분리하였는데, 60편에 해당

하는 실증적 연구 중 질적연구는 10편,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혼용한 혼합 연구는 3편이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국내 영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 중 하나인 김영우와 김주혜(2015)는 2014년까지 국내 영어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영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주제로 수행된 논문은 전체 논문의 8% 수준이며, 이 중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음을 보고하였다. 김태영과 이희진(2015)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조기영어교육 및 초등영어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연구 동향 분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연구가 전체 연구의 50% 수준으로 가장 많음을 보고하였으나,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들의 경우 질적연구가 양적연구보다 더 많았으며 혼합연구 역시 증가하고는 추세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주제별 분석을 통해 조기영여교육 및 초등영어교육 분야에서는 교수학습법에 대한 논문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안혜성과 박매란(2020)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내 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로서, 2000년부터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이라는 특정 이론을 적용한 영어교육 관련 논문 38편을 대상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설정한 분석 범주에 따라 대상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다른 연구 동향 분석 논문들과는 달리, 연구 대상 논문들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영어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형태와 평가 방법 등의 여러 요인들 간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질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2. English Literacy에 관한 연구

English Literacy(EL)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의 향상, 즉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한다. Heath(1983)는 문해력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활동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세지를 전달하고 받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포함한다고 주장 하였다. 박영예(2011)는 문해력을 최소수준의 문해력과 기능적 문해력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는데, 최소수준 문해력은 단순한 메시지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고, 기능적 문해력은 사회에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쇄물의 읽기, 쓰기, 셈하기, 문서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박영예(2011)는 두 가지 수준의 문해력 기준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초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영어수업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언어발달을 위해 알파벳과 단어를 인식하고, 발음과 음소인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소현과 김경한(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문해력 발달을 위해 총체적 영어교수법을 제안하였는데, 우길주(2009)의 연구를 인용하여, 문해지도 넓은 의미의 언어학습을 위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문자적 의미의 읽기 쓰기를 넘어서는 영어교육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ransman(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1/4의 성인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언어학습기관이나 다양한 학습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한 현실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EL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Fransmas은 EL에 대한 개념화를 위해 기존의 Functional Literacy(FL)은 자율적(autonomous) 접근, Critical Literacy(CL)은 변환적(transformative) 접근, Literacy of Social Practice(LSP)는 관념적(ideological) 접근으로 구분하고 각 접근에 대한 연구방법, 중점사안, 추구하는 목표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FL은 주로 측정이 가능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 많은 OECD 나라에서 외국어학습의 목표로 활용하였다(Trett & St. Clair, 2010). 그러나 FL 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Fransman(2008)은 일상생활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읽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강요하는 점, 학습자의 반응을 무시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L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포함하고 있고, 브라질의 교육학자 Freire의 영향을 받아, 학습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정의와 비정의를 기반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Freire & Macedo, 1987). Freire(2000)에 의하면, 말하기, 읽기, 쓰기는 적극적인 학습과정과 사회적인 전환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Fransman(2008)은 CL의 습득은 학습자들의 경험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야를 탐구하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CL역시 정치와 사회적인 참여활동을 강조하면서 학습자 개개인과 문화적 관점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Fransman, 2008). SP의 Literacy에 대한 접근은 FL과 CL에서 벗어난 그 이상의 설계를 강조한다(Fransman, 2008). Trett과 St. Clair(2010)은 CL이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교실을 연결하고, 인쇄된 문자와 다른 미디어 매체, 학습과 교육을 연결하는 Literacy의 습득이라고 주장한다. CL은 문자그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되는 문장의 배경이 되는 지식의 습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국내 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발간한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연구논문 93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요 연구 목적 중 하나가 최근의 전반적인 영어교육 연구 동향을 폭넓

고 심도있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영어교육 분야의 KCI 등재 학술지의 하나인 '영어어문교육'을 선정하였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연구논문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영어어문교육'은 현재 26권의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난 25년동안 영어와 영문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영어교육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 유일한 종합학술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3년간 논문전체를 연구의 범위로 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영어교육 연구에서 English Literacy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맞는 문헌을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해, 수집한 연구자료는 빈도분석(freuqeuency analysis)을 통해 전반적인 영어교육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성희(2005)와 이온순, 박지선, 장형지(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어교육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의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의 주제, 연구의 대상, 연구 방법의 세가지 기준으로 수집된 문헌을 분류하여 빈도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문헌들을 전문가의 선험적 분석유목 설정을 통한 1차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행하였다. 타당도(validity)를 높이기 위해, 연구분야의 전문연구자 2명이 교차검토를 실시하였고, 논의를 통해, 분석을 완성하였다. 내용분석을 실시한 기준으로 사용한 EL의 분류기준은 Fransman(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다음의 표 1와 같이 EL을 FL, CL, SP로 구분하여 문헌을 분석하였다.

표 1

English Literacy에 대한 접근(Fransman, 2008)

Literacy	Purpose	Focus	Method
Functional	Competition/Devlopment	Competence	Quantitative or qualitifiabel
Critical	Social transformation	Critque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Social practice	Contextual relevance	Design (events, practices, domain)	Ethnographic research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영어어문교육' 연구 논문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1) 연구주제

최근 3년간 영어교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영어교육 분야에서 근래 가장 중요시되거나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의 누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영어교육 연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논문 93편을 연구주제 영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어교육 연구의 연구주제 영역 동향

주제 영역	교수법	학습자특성	평가	교재개발	화용론	교육과정	기타	합계
빈도수(편)	31	25	8	6	6	4	13	93
비율(%)	33	27	9	6	6	%	14	100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 영역은 '교수법'으로, 전체 논문의 31%를 차지하였다. 교수법 관련 논문은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학습 등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일례로 임병빈(2017)은 다독과 속독 기반의 교수활동이 대학생의 영어 읽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Hwang(2019)는 대학교 비즈니스 영어 쓰기 수업에서 동료 피드백을 적용한 쓰기 학습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습자 특성을 주제로 한 논문이 25편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는데, 탈북대학생들의 영어학습 특성을 다룬 Lee(2017), Shin, Yu, Kim & Kim(2019)의 연구, 대학생들의 수업 외 학습 경향과 그 효과성을 탐색한 Oh(2017), Choi(2018)의 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전체 논문의 13%에 속하는 기타 주제 영역으로는 영어교사 양성(Choi, 2019)이나 초임 영어 교사의 정의적 특성을 다룬 연구(Lee & Kim, 2018),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 연구를 비교 분석한 이온순, 박지선, 장형지(2018)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논문의 연구 내용 분석과 주제어(key word)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여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어교육 연구의 세부 연구주제 동향

세부 주제	빈도수 (편)	비율 (%)	세부 주제	빈도수 (편)	비율 (%)
쓰기학습	11	11	문화학습	4	4
문법학습	8	8	화행	4	4
어휘학습	8	8	협력학습	3	3
읽기학습	7	7	학습동기	3	3
평가	7	7	프로그램 사례	3	3
기술공학활용학습	6	6	수업외학습	2	2
듣기학습	5	5	교사교육	2	2
말하기학습	5	5	교육과정	2	2
영어인식 및 정체성	5	5	기타	11	11
			합계	100	100

연구대상 논문 93편 중 7편은 연구 내용 분석 결과 세부 연구주제가 2개 이상(예: '협력수업, 쓰기학습')으로 각 주제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경우 각 주제의 빈도를 독립적으로 빈도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세부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의 빈도수 총합은 93편이 아닌 100편으로 산정되었다. 세부 연구주제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쓰기학습으로, 전체 논문의 11%인 11편이 영어 쓰기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뒤를 이어 문법학습(8%), 어휘학습(8%), 읽기학습(7%), 평가(7%) 관련 주제의 논문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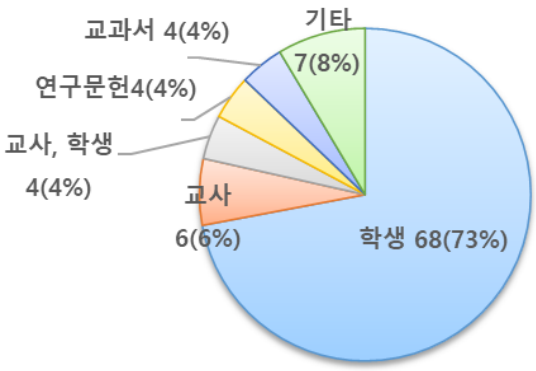
2) 연구대상

최근 영어교육 논문의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은 영어의 교수학습에서 초점화되는 주체가 학생(영어 학습자)인지, 교사(영어 교수자)인지, 아니면 영어교육과 관련된 이론 자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93편의 논문의 연구대상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전체 93편의 논문 중 72%에 해당하는 67편이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은 6편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하였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은 4편으로 전체 논문의 4%에 해당하였다. 또한 교사나 학생과 같이 영어 교수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상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 즉 선행 와 같은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각각 4%에 해당하는 4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선정된 연구대상은 영어교육에 있어 학습자에 해당하는 학생이며, 영어교육 연구의 주된 관심이 교수 행위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과 영어 학습특성을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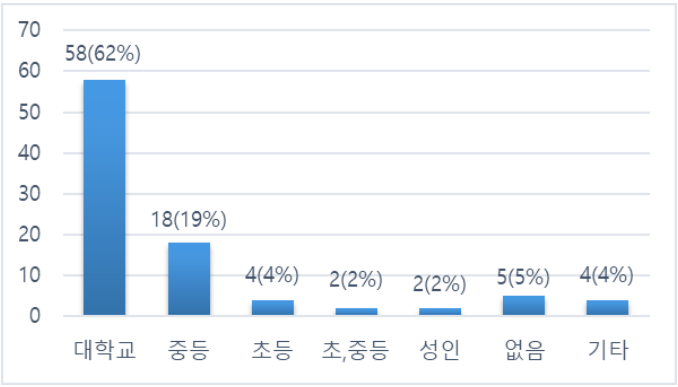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영어교육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 동향



또한 93편의 논문이 선정한 연구대상이 속한 학교급을 하나의 범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대상 학교급 선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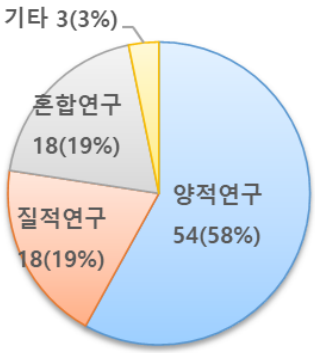
93편의 논문이 선정한 연구대상의 학교급을 하나의 분류 범주로 분석한 결과, 대학교가 62%에 해당하는 58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중등학교급에 대한 논문이 18편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초등학교급 이하나 성인에 대한 논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에 해당하는 5편의 논문은 특정 학교급을 상정하지 않은 연구로, 주로 영

어 드라마나 영화(Na & Jun, 2017; 서지영, 2017) 또는 영어 원어 코퍼스(김향숙, 2018)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93편의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정량적 분석을 제시한 양적연구와 정성적 분석을 제시한 질적연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이 혼용한 혼합연구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영어교육 연구의 연구방법 동향



연구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양적연구로, 전체 논문의 58%인 54편이 이에 해당하였다. 양적연구에는 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 실험연구(Kim, 2017; Noh, 2018; Choi & Lee, 2018)와 설문조사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Lee, 2019; Im, 2018; Jung, 2017)가 포함되며, 이 외에도 코퍼스 분석을 적용한 연구(Kim & Chon, 2017; 김향숙, 2018)와 영어교육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박옥희 & 윤지여, 2019; 송해성, 2017)도 있었다. 질적연구로는 영어 학습자나 교수자의 구두 및 문서 자료를 대화 및 담화 분석이나 근거이론과 같은 질적 분석틀을 적용해 분석한 논문(Kim, 2018; Park, 2017; Choi 2019)과 특정 영어 교수학습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사례연구(권은미 & 강문구, 2019; Han & Han, 2019) 등이 있었다. 혼합연구에는 통계적 분석을 적용한 양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면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다수 포함되었다(Park, 2019; 이명관, 2019; Lee, 2018; Chang, 2017).

2. EL 분류에 따른 최근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영어교육 논문에서의 EL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총 93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EL분류에 따라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L에 대한 논문은 31편, CL에 대한 논문은 34편, SP에 대한 논문은 28편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CL에 대한 논문이 34편으로 가장 많았으나 CL 과 FL, SP 간 논문 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1) 연구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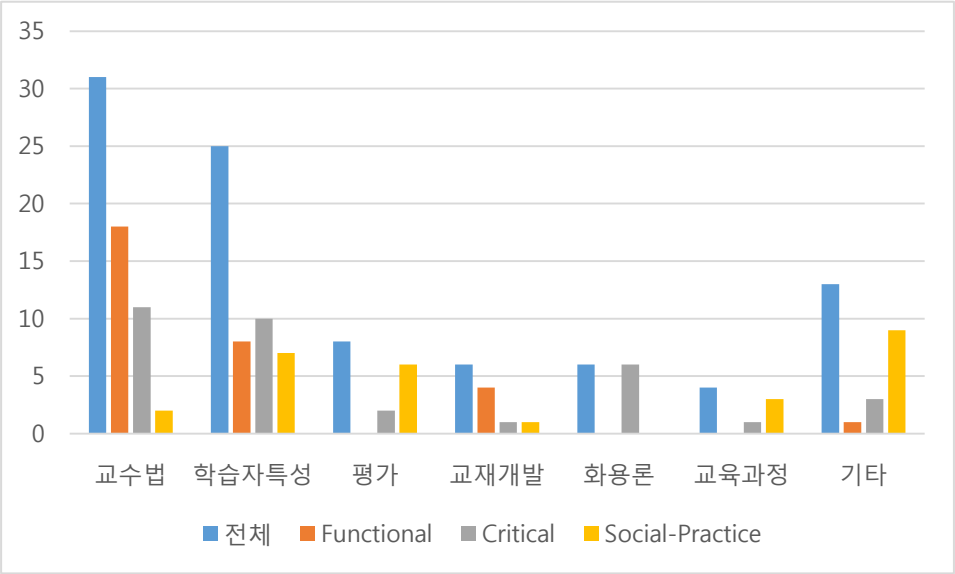
EL 분류에 따라 연구주제 영역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표 4와 그림 4), FL, CL, SP에 따라 연구주제 영역별 구성과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FL의 경우 교수법에 대한 논문이 전체 31편 중 58%에 해당하는 1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자 특성과 교과서 등의 교재개발에 대한 논문이 각각 26%와 13%를 차지하였다. CL의 경우 교수법에 대한 논문이 전체 34편 중 32%, 학습자 특성에 대한 논문이 26%로 유사하였으며, 화행(speech act)과 같은 화용론 관련 연구도 CL 논문의 18%를 차지하였다. SP에 대한 논문의 경우 전체 28편 중에서 교육정책과 교사연구, 영어 학습에서의 사회문화언어학적 특성을 포함한 기타 주제 영역에 대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자 특성을 다룬 논문과 평가 관련 논문이 각각 7편과 6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
EL 분류에 따른 연구주제 영역별 동향

		교수법	학습자 특성	평가	교재 개발	화용론	교육 과정	기타	합계
전체	빈도수	31	25	8	6	6	4	13	93
	비율	33%	27%	9%	6%	6%	4%	14%	100%
FL	빈도수	18	8	0	4	0	0	1	31
	비율	58%	26%	0%	13%	0%	0%	3%	100%
CL	빈도수	11	10	2	1	6	1	3	34
	비율	32%	29%	6%	3%	18%	3%	9%	100%
SP	빈도수	2	7	6	1	0	3	9	28
	비율	7%	25%	21%	4%	0%	11%	32%	100%

그림 4

EL 분류에 따른 연구주제 영역별 동향



2)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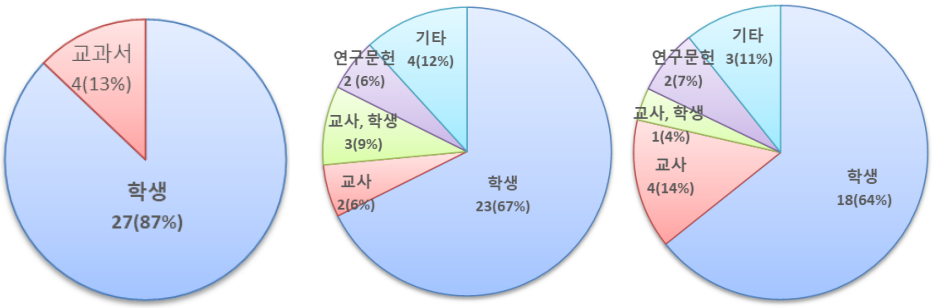
EL 분류에 따라 연구대상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 및 그림 5와 같다. 먼저 FL의 경우 전체 31편의 87%에 해당하는 27편의 논문이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이 4편이었다. CL과 SP 관련 연구에서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를 연구대상에 포함한 연구도 각각 5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FL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대상 선정을 보여주었다.

표 5

EL별 연구대상 선정 동향

		학생	교사	교사, 학생	연구 문헌	교과서	기타	합계
전체	빈도수	68	6	4	4	4	7	93
	비율	73%	6%	4%	4%	4%	8%	100%
FL	빈도수	27	0	0	0	4	0	31
	비율	87%	0%	0%	0%	13%	0%	100%
CL	빈도수	23	2	3	2	0	4	34
	비율	68%	6%	9%	6%	0%	12%	100%
SP	빈도수	2	4	1	2	0	3	28
	비율	64%	14%	4%	7%	0%	11%	100%

그림 5
EL별 연구대상 동향



[Function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Social-Practice]

연구대상의 학교급별 동향과 관련하여, EL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FL의 경우 전체 31편의 논문 중 74%에 해당하는 23편의 논문이 대학교급에서의 영어교육을 탐색하였으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7편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CL과 SP 관련 연구에서 역시 대학교급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FL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SP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논문이 전체 28편 중 36%에 해당하여 다른 FL이나 CL 연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표 6
EL별 따른 연구대상 학교급 선정 동향

		대학교	중등	초등	초, 중등	성인	없음	기타	합계
전체	빈도수	58	18	4	2	2	5	4	93
	비율	62%	19%	4%	2%	2%	5%	4%	100%
FL	빈도수	23	5	2	0	0	0	1	31
	비율	74%	16%	6%	0%	0%	0%	3%	100%
CL	빈도수	20	6	1	0	0	5	2	34
	비율	59%	18%	3%	0%	0%	15%	6%	100%
SP	빈도수	15	7	1	2	2	0	1	28
	비율	54%	25%	4%	7%	7%	0%	4%	100%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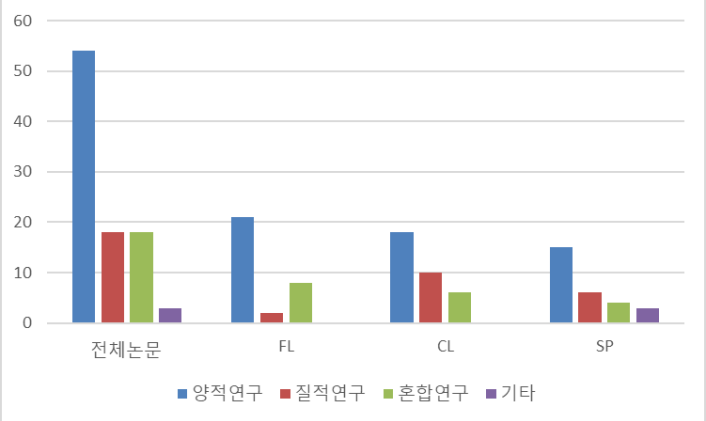
EL 분류에 따라 연구방법 적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및 그림 6과 같다. FL, CL, SP 모두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를 적용한 논문의 비율은 EL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FL 연구의 경우 혼합연

구가 26%로 높았으나 질적연구는 6%인 2편에 불과하였다. CL 연구의 경우 혼합연구가 18%에 해당하는 반면 질적연구가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SP 연구는 CL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다른 EL 접근법과는 달리 기타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3편 포함하였다.

표 7
EL별 연구방법 동향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	합계
전체	빈도수	54	18	18	3	93
	비율	58%	19%	19%	3%	100%
FL	빈도수	21	2	8	0	31
	비율	68%	6%	26%	0%	100%
CL	빈도수	18	10	6	0	34
	비율	53%	29%	18%	0%	100%
SP	빈도수	15	6	4	3	28
	비율	54%	21%	14%	11%	100%

그림 6
EL별 연구방법 동향



3.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영어교육연구에서 English Literacy(EL)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EL을 기반으로 한국의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어문교육' 학술지의 최근 3년간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영어교육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다양한 변화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는 '교수법'(33%)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현구(2014)의 연구에서는 '영어어문교육' 학술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주제는 '평가'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주제가 '평가'에서 '교수법'으로 최근 3년간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주제의 대분류 아래, 소분류를 통해,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확인 한 결과, 쓰기학습(11%)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다음으로 문법, 어휘, 읽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FL학습자를 대상으로 쓰기, 문법, 어휘, 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최근의 영어교육 연구주제 설정이 EL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과 관련되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이현구(2014)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주로 연구자가 대학교수인 경우가 많고, 연구방법 분야에서 '양적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대학교수인 연구자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 김태영과 이희진(2015)의 연구에서 조기영어교육과 초등영어교육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서 2015년도에 발간된 논문의 경우,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따른 다양한 연구방법을 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양적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영어교육분야의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연구에 의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결과일것이다.

둘째, 영어교육연구에서 EL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FL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연구주제는 FL과 CL에서는 '교수법', SP는 '교육정책과 교사연구', '영어 학습에서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포함한 기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FL과 CL의 경우, 영어교육연구 전반에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개념-기능 교수요목(notional functional syllabus)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가 높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EL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연구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L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FL, CL, SP 모두 학생(68%)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L의 경우, 학생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뤘지만, CL과 SP의 경우, 학생, 교사, 교사-학생,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지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Fransman(2008)이 지적한 FL의 문제점에서, 사회, 맥락적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언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FL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학습변인으로 학습자와 교재를 중심으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에 의한 연구가 FL, CL, SP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ransman(2008) 이 언급한 세가지 EL에 대한 접근에서, FL은 양적연구(Quanitative research), CL은 실행연구(Action research), SP는 민족지학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로 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볼때, FL은 Fransman의 분류와 일치하고, CL과 SP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행연구와 민족지학적연구를 진행하는 필요한 연구대상과 수업현장의 확보의 어려움이 우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영어교육 연구논문과 관련된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주제중에 교수법, 그 중에서도 특히 쓰기, 문법, 어휘, 읽기 학습에 대한 연구가 지난 3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EL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초등학생이나 초기의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영예, 2011; 우길주, 2009; 한소현 & 김경한,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의 EL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Tett와 St. Clair(2010)이 성인의 문해력 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과 유사한 결과로 분석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영어교육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연구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English Literacy(EL)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수집된 연구논문은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주제는 주로 영어교수법, 연구대상은 대학생,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영어교육 연구에서 EL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Fransman(2008)의 EL 에 대한 FL, CL, SP의 접근을 기준으로 수집된 연구논문을 구분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L에 관한 연구가 최근 3년간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연구논문들 중에 가장 많았고, FL, CL, SP의 연구주제는 교수법,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연구대상은 학습자 중심의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적인 함축은 국내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 FL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외국어 학습에서 New Literacy로 구분되는 SP 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영어교육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논문이 총 93편이고, 한 개의 종합학술지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한 면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차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Blake, D., & Hanley, V. (1995). *Dictionary of educational terms*, Aldershot, Arena

Chang, H. (2017). Capstone design based business English course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2), 1-15.

Choi, J. (2018). Understanding of out-of-class English learning of Korean students in relation with affective factors and motiv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4), 21-40.

Choi, S. (2019). Developing preservice EFL teachers' pedagogical competence through lesson plan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3), 1-20.

Choi, Y., & Lee, K. (2018). Effects of ESL learners' use of subtitles on news watching: No Subtitle, during watching, and after watching new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1), 14-34.

Dozier, C., Johnston, P., & Rogers, R. (2006). *Critical literacy/critical teaching: Tools for preparing responsive teach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Fransman, J. (2008). Conceptualizing Literacy for Policy and Practice. *Adult Education and Development, 71*, 55-70.

Freire, P. (1995).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Freire, P. (200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Freire, P., & Macedo, D. (1987).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Routledge.

Han, D., & Han, E. (2019). Effects of overseas internship on English lear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1), 1-19.

Harste, J. C. (2003). What do we mean by literacy now? *Voices from the Middle, 10*(3), 8-12.

Heath, S. B. (1983). *Ways with wo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wang, S. (2019). Peer feedback in business email writing classes for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3), 21-40.

Im, H. (2018). Perceptions of world English: Different attitudes from inner and expanding circl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1), 35-56.

Jennings, Z. (2000). Functional literacy of Young Guyanese Adult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6*, 93-116.

Jung, H. (2017). Understanding language-learning environments with social cognitive theory: Gender differences in adopting smart learning technolo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3) 1-21.

Kim, E. (2017). Korean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their focus on form learning under implicit and explicit condi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1), 55-75.

Kim, E., & Chon, Y. V. (2017). Korean high school learners' knowledge of adjective-noun and verb-noun collocations by L1-L2 congruency and L2 proficien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1), 77-99.

Kim, S. (2018). Learning English and identity construction of Korean early study abroad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2), 89-110.

Lawton, D., & Gordon, V. (1996). *Dictionary of Educati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Lee, J. (2018). An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emotivation and remotivation in the EFL classroo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1), 57-81.

Lee, J. (2019). EF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in terms of gender and vocabulary knowled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2), 1-20.

Lee, J., & Kim, T. (2018). Novice English teachers' initial career motives and demotivation in South Kore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3), 1-20.

Na, Y., & Jun, S. (2017). The different contexts of *be going to* and *will*: Through the lens of directionali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4), 97-116.

Noh, S. (2018). Using the concept of frame for EFL reading i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3), 21-44.

Oh, E. (2017).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ut-of-class learning and Korean EFL students listening, reading and grammar knowledg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3), 89-107.

Park, P. (2019). The effects of a project-based digital storytelling

program using a video-editing platfor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3), 105-129.

Park, S. (2017). Three Korean English language teachers' identities constructed in teaching general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3), 109-129.

Shin, S., Yu, S., Kim, I., & Kim, B. (2019). English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What promotes and what hinders the students from achieving learning goal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1), 141-162.

Street, B. (1995). *Social Literac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development, education and ethnography*. London: Longman.

Tett, L., & St. Clair, R. (2010). Adult Literacy Education. In K. Rubenson (Ed.),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p.100-105). United Kingdom: Elsevier Limited.

Wyse, D. (2009). Teach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9*(3), 287-290.

강동호. (2006). 학술지 40년 영작연구 회고와 전망. *영어교육*, *61*, 97-114.

권은미, 강문구. (2019). 구글클래스룸 활용 과정중심평가. *영어어문교육*, *25*(4).

김영우, 김주혜. (2015).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영어교육연구*, *27*(2), 57-83.

김진완. (2006).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연구방법, 연구성향 및 연구주제. *영어교육*, *61*, 247-260.

김태영, 이희진. (2015). 조기영어교육과 초등영어교육의 연구동향: 2000~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3*(3), 67-91.

김향숙. (2018). 5가지 장르에서 사용된 대조 연결사 'however'와 'but'의 코퍼스 분석. *영어어문교육*, *24*(4), 65-87.

김현진. (2014). 영어어문교육 연구 논문 분석: 교수/학습 방법, 문화, 내용 기반 수업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0*(1), 357-378.

박영예 (2011). 초등학생들의 초기 영어 문해력 분석. *신영어영문학*, *49*, 201-225.

박옥희, 윤지여. (2019). 메타 분석을 통한 수준별 영어 수업의 효과 크기 분석. *영어어문교육*, *25*(4), 107-130.

서지영. (2017). 영화에서의 대화분석: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3*(4), 165-185.

성명희, 남은희. (2010). 창간 10년간 게재논문 실태분석. *현대영어교육*, *11*(2), 1-19.

송해성. (2017). 소집단 협동학습을 활용한 영어수업의 효과: 메타분석.

영어어문교육, *23*(4), 187-214.
안해성, 박매란. (2020). 국내 영어 교육에서 Vygotsky 이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영어교과교육*, *19*(1), 97-120.
우길주. (2009). 리터러시 기반 초등영어 교사 양성.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보*, *26*, 17-20.
이명관. (2019). 플립러닝 기반 영어 읽기·쓰기 통합수업이 대학생들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25*(4), 131-152.
이성희. (2005). '외국어교육' 게재 연구 논문 실태 조사: 창간 10주년에 즈음하여. *Foreign Language Education*, *12*(1), 107-136.
이온순, 박지선, 장형지. (2018).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고교-대학 연계 영어교육 연구. *영어어문교육*, *24*(4), 149-167.
이현구. (2014). 교육과정, 영어교과서 및 평가에 관한 논문 분석 연구: '영어어문교육' 학술지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0*(1), 497-520.
임병빈. (2017). 대학생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다독 · 속독 기반 수업의 학습 효과. *영어어문교육*. *23*(4), 237-260
임희정. (2019). 내용 언어 통합 초등영어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803-824.
조아라, 김태영. (2018). 영어 교사의 교수 동기 연구 동향: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3*(1), 313-344.
조은영, 심윤진, 안재린, 김영규. (2012). 학문 목적 한국어 분야에서의 요구 분석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 *19*(4), 473-495.
차경환. (2006). 학술지 듣기논문의 학문적 변천 연구. *영어교육, 61*, 31-56.
차경환, 김영규. (2010). 한국응용언어학회 학회지 게재논문(1983-2008)에 나타난 연구 경향 분석. *응용언어학*, *26*(1), 91-110.
한소현, 김경한. (2015). 초등 영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파닉스 교수법과 총체적 언어 교수법 비교, *외국어교육*, *22*(1), 279-303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장형지(교수)
선문대학교 글로벌관광학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31460
Email: maira5576@hanmail.net

박지선(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진천군 교학로 8
27873
Email: jspark@kice.re.kr

Received: April 16, 2020
Reviewed: May 27,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5, 2020